



## 세월호의 아픔을 농업·농촌 재정립의 계기로 삼아야!



회장 윤 천 영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여가 지난 지금도 온 국민은 우울증에 걸렸다고 할 만큼 비통함과 무기력에 빠져 있다. 그리고 아직도 온 나라가 그 충격과 깊은 시름에서 쉽게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사고의 원인에서 구조, 수습 등 모든 과정에서 정상이 아니었다. 단지 한 번의 잘못으로 일어난 것이 아닌 앞만 보고 달린 수십 년 동안 쌓인 적폐가 끓어터진 결과였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의 총체적 자화상을 명명백백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이번 참사는 1993년 일어난 서해훼리호 사고 말고도 성수대교 붕괴(1994년),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등 후진국형(型) 사고를 잇는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이었다. 오히려 재난으로 뒤범벅된 1990년대 발생한 사고보다 더 후진적인 어처구니없는 일이 터지고 말았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관행을 모두 뜯어고쳐야 하는 고통스러운 국가개조의 현실에 직면해 있다.

올해 국민 1인당 GDP 전망은 1993년의 3배 정도인 2만6,000달러이다. 거의 선진국 문턱까지도 달하였고 분야에 따라서는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는 것이 적지 않다. 그러나 '세계 1위'라는 번드르르한 포장을 걷어내고 보면 그 안의 알맹이가 어떤 수준인지 이번 사고가 여실히 보여줬다. 당국은 실종자 집계 하나 제대로 못해 허둥댔다. 선진국이 되었다고 들떠있던 우리들이 그저 부끄러울 따름이다.

돌이켜보면, 1910년 일본의 강제병합으로 36년간 식민통치, 1950년 6.25 전쟁, 1960년 4.19 학생 민주혁명, 1961년 민족중흥의 5.16혁명과 이어진 산업화로의 압축 고도성장파와 민주화 등 도도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빠르게 성취해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원칙과 기본을 소중히 생각하며 실천하는 성숙된 시민 의식을 미처 갖추지 못하였고 남을 배려하는 나눔의 선진 민주시민 정신을 몸소 실천하는 역량이 매우 부족하다.

우리 농업분야를 보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반세기동안 농업기술과 농촌 근대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아직도 안전 농축산물 생산은 물론, 식품안전과 위생 문제는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있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도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여기에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의 여파 속에 농가는 경쟁력을 잃어 시름하고 있고 농촌은 점점 늙고 황폐해져 가고 있어 농업·농촌이 지속 가능할지 걱정이다.

그러나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경험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4대악 근절 차원에서 불량식품에 대해서도 엄벌에 처할 것임을 누차 천명하였고 생산자나 소비자의 농식품 안전문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먹을거리를 갖고 장난쳐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에게는 선진국처럼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불량식품 등에 대해서도 당국의 보다 강력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중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라든지 개체식별 번호를 위조해 쇠고기 등급을 속이거나 아이들이 먹는 이유식 원료의 원산지를 속이는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강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들이 두 번 다시 농·식품업계에 발붙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우리 농업이 혁명적으로 환골탈퇴해야 한다. 단순히 '농업 개조(改造)'의 수준이 아니라 '농업 정립(正立)'의 각오로 농민의 정신혁명(精神革命), 농업의 기술혁명(技術革命), 농촌의 생활혁명(生活革命)을 일궈내야 한다. 이는 우리 협회의 모토이기도 하다. 지난 날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 부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해내자며 일어난 선도농가의 농업기술 운동에 이은 새마을 운동의 그 정신을 다시 마음에 깊이 새기고 글로벌 시대에 합당한 시대정신인 국민 농업 운동 활성화로 대한민국의 농업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틀을 다시 바르게 세워야만 한다.

이제 세월호 사건을 이용한 정쟁 중단과 일부의 극단적 반정부, 국가 부정의 생각과 행동은 즉각 중단해야 하며, 최근 주변국들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태를 직시하면서 5천만 국민의 에너지를 창조적, 미래지향적으로 함께 모아 평화적인 통일의 꿈을 이루어 내기 위해 나부터 솔선수범하려는 올바른 마음과 행동으로 더 안전하고 밝은 희망의 미래가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어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

이러한 밝은 미래를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하여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하고 힘차게 출발합니다!㉟